



## 존경하는 마이클 벤틀 함부르크 개항축제 담당 특별대표님께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입니다.

먼저 「KOREA-BUSAN FESTIVAL」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애써주시고 행사 후에 감사 편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본 서한을 통해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번 부산시 대표단의 함부르크 방문 때 베풀어주신 마이클 벤틀 씨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는 이번 함부르크 방문을 통해 부산의 문화관광기업 등을 알리고, 부산과 함부르크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함부르크 개항축제 행사장을 찾은 약 120만명의 관람객들에게 함부르크의 파트너 도시로서 부산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030세계박람회 개최도시는 2023년 11월에 179개 BIE 회원국의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마이클 벤틀 씨를 비롯한 함부르크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디 우호협력도시로서 부산을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대표단에 베풀어주신 친절한 호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조만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023. 6. 1.

부산광역시장 박형준